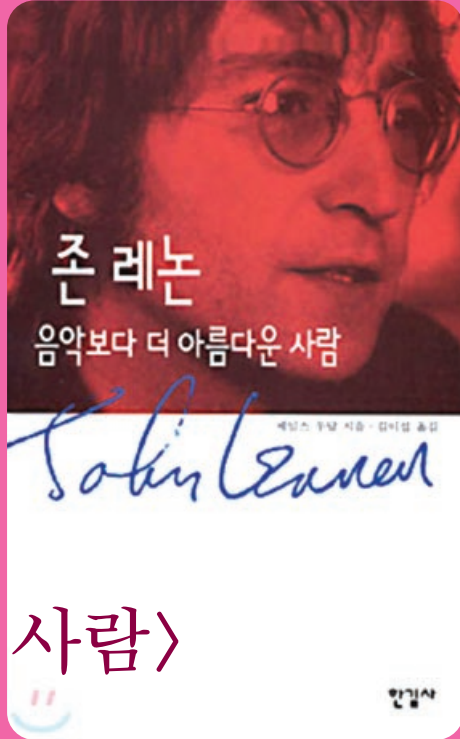


연예계정보



제임스 우달의

## 〈존 레논,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 비틀즈라고?

나는 비틀즈에 열광했던 60년대 사람이 아니다.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나로서는 비틀즈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를 느낄만한 경험이나 이유가 없었다. 단지 '비틀즈'라는 그룹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중학교 시절 어렴풋이 주워 들었을 뿐이었다. 사실 나는 '뉴 키즈 온 더 블록'에 더욱 열광하는 세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생활까지 마치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자 나는, 선배들의 우상이었던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인생이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지금 그들의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열정적인 팬이 되었다. 비록 그들은 가고 없지만, 그들의 음악은 세월 속에 살아 남아 세대를 거스르며 감동의 파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리라.

###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 존 레논과 오노 요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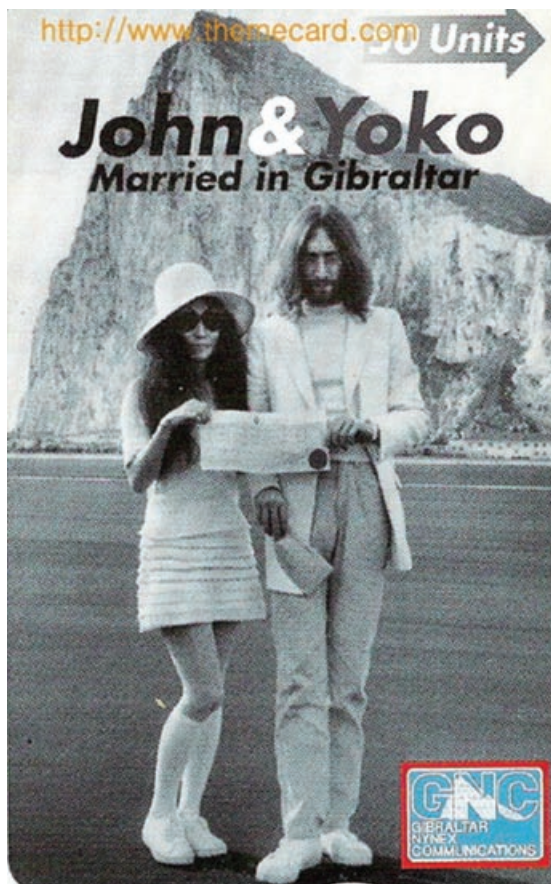
이 책의 원제는 〈John Lennon und Yoko Ono〉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 속에는 비틀즈의 탄생 배경이나, 존 레논을 제외한 비틀즈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존 레논이 오노 요코와 만난 시점부터 1980년 12월 8일 밤 마크 채프먼이 쏜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던 때까지 겪은 레논의 삶을 시대 순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존 레논의 정서적 방향과 요코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신념, 멤버들과의 불화,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된 반전 및 평화 시위 활동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으며, 그가 살다 간 삶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책에는 매우 신비하고 특별한 레논의 여자, 오노 요코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레논보다 7살이나 연상이었지만 풍부한 예술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독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그런 매력에 바로 존 레논이 그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리라. 결국 두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예술적으로 경쟁하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다. 레논은 첫번째 부인 신시아를 버리고 요코에게 자신을 던졌다.

팬들은 레논을 요코에게 빼앗겼고, 비틀즈 멤버들 역시 그녀에게 존을 잃어 버린 꼴이 되었다. 점점 더 비틀즈의 음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녀를 비틀즈의 다른 멤버들이 좋아할 리 없었다.

이 책에는 음악적인 성공과 함께 따라오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을 녹초로 만드는 스타시스템 속에서 레논이 느낀 염증, 결국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까지의 전신적 공황이 여실이 묘사되고 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파병, 폴포트에 의해 엄청난 학살이 행해진 캄보디아의 내란, 러시아의 체첸 침공 등은 그를 반전 운동, 평화 운동에 직접 뛰어들게 만들었고, 영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 감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요코와 존은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베드인(Bed in) 시위를 할 때도, 1969년 성탄절을 맞이한 전세계 11개 도시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 때도 그들은 함께였다.(WAR IS OVER IF YOU WANT IT, Happy Christmas from Jonh & Yoko) 레논은 당시 여성주의 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요코의 영



향으로 자신의 가운데 이름인 '윈스턴(Winston)'을 '오노(Ono)'로 바꿔 '존 오노 레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도 했다. 책은 전쟁과 정치적 비리에 반항하며 온갖 시위와 전시회 활동을 해온 이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둘 사이의 사랑을 굳건하게도 만들었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책에 간간히 삽입되어 있는 레논의 인터뷰는 읽는 재미를 두 배로 만든다. '엘튼 존'과 함께 만든 공동 앨범에 관한 이야기, 'Without you'를 부른 '해리 닐슨'에 관한 이야기, 반전 가수이며 포크 송의 대부 '밥 딜런', 선구적 음악가인 '존 케이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레논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폴 메카트니'를 최고의 동료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친구라고 밝힌 요코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다.

### 아름다운 사람은 가고

오랜 방황을 끝내고,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로 살고 있던 레논이 다시 음악을 통해 새로운 80년대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마크 채프먼의 총탄에 스러진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다. 1980년 12월 8일, 그가 존 레논을 향해 총을 겨누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의 음악으로 채웠으리라.

ps : 요코가 지은 〈포도 열매〉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 'Imagine'을 띄웁니다. 이 곡은 존이 요코에게 선물한 흰색 그랜드피아노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존의 두 번째 싱글 앨범 'Imagine'. 검정색 옷을 즐겨 입었던 그녀에게 흰 피아노라니.

주성식(아라비카) - <http://codingstar.net>

### 사진으로 보는 풍경



남이섬 은행나무 길 사진\_강수현